



유통

퀵커머스를 확대하는 쿠팡



쿠팡이 '쿠팡이츠'를 통해 퀵커머스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경쟁사 대비 빠른 배송과 다양한 셀렉션, 그리고 전담 배달원 도입을 통해, 커버리지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E-Commerce 시장 성장을 둔화와 쿠팡의 전략적 입장을 감안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쿠팡의 퀵커머스 커버리지가 의미 있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할인점/SSM/편의점에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쿠팡이츠, 퀵커머스 서비스 본격 확대 움직임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쿠팡이 MAU 520만명을 보유한 '쿠팡이츠' 앱을 통해 퀵커머스 서비스(1시간 내로 생필품과 식재료 등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담 배달원 '쿠팡이츠마트 친구'를 활용해 경쟁 업체 보다 배송 시간을 단축하고, 서울 송파에 한정되었던 활동 지역을 서울 강동/역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사는 쿠팡이 퀵커머스 서비스의 지역 커버리지를 확대한다면, 신규 소비자들 이 크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통해 MZ 세대 소비자에게 서비스 신뢰도를 꾸준히 높여왔고, 단건 배달 서비스로 쿠팡이츠의 MS가 크게 확대 되었으며, 상품 직매입 관점에서도 배달의 민족의 B마트 대비 상대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쿠팡의 배송 속도(10~15분 이내 배송 추구)도 경쟁사 대비 빠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높아진 효용에 만족을 느끼고 퀵커머스의 신규 고객으로 유입될 수 있다.

>>> 퀵커머스 시장 확대는 할인점/SSM/편의점에 위협 요인

최근 E-Commerce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쿠팡이 성장성 제고를 위해 커버리지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국내 백신 접종률 상승 이후 '위드 코로나' 국면 진입에 따라, 전체 E-Commerce 시장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당사는 내년 2분기까지 재화 E-Commerce 시장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당사 10/7 발간자료 '커머스 게임' 참조). 둘째, 식품은 여전히 E-Commerce 시장 침투율이 낮은 재화로 他 재화/서비스 대비 성장 잠재력이 높다. 셋째, 배달의민족이 올해 6월에 단건 배달 서비스인 '배민1'을 출시하고, 요기요가 올해 하반기부터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면서, 쿠팡은 확실한 MS 상승을 위한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하다. 실제, 쿠팡의 '3분기 YoY 거래액 성장률'은 +51%로 상반기의 +61% 대비 둔화되는 추세이며, 쿠팡이츠의 월별 MS 상승세도 다소 둔화된 상황이다. 따라서, 쿠팡이 '쿠팡이츠마트'의 커버리지를 점차 확대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퀵커머스 커버리지 확대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위와 같은 퀵커머스 시장 확대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주로 유통하는 할인점/SSM/편의점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퀵커머스 시장 침투율 상승은 해당 품목에 대한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의 MS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음식료/유통

Analyst 박상준, CFA

02) 3787-4807 sjpark@kiwoom.com

RA 송민규

02) 3787-5139 mgsong@kiwoom.com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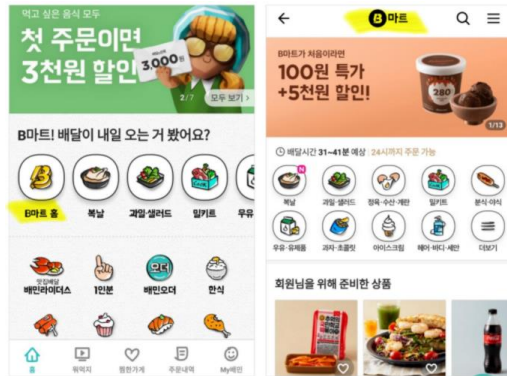
- 당사는 10월 2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B마트 vs 쿠팡이츠마트 서비스 비교

구분	B마트	쿠팡이츠 마트
서비스 지역	수도권, 대전	서울 송파, 강동, 역삼(예정)
배송 시간	1 시간 내	10~15 분
배달료	3만원 이상 무료/3만원 미만 3000 원	2000 원
수수료 지급 방식	배송 건당 2000~5000 원 지급	전담 배달원에게 월급 지급(월 급여 250만원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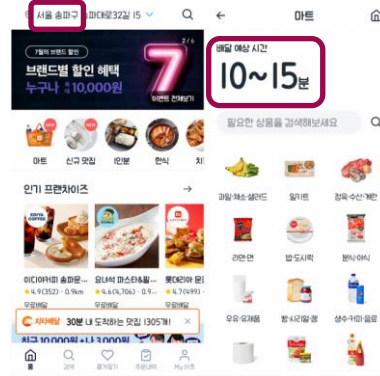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B마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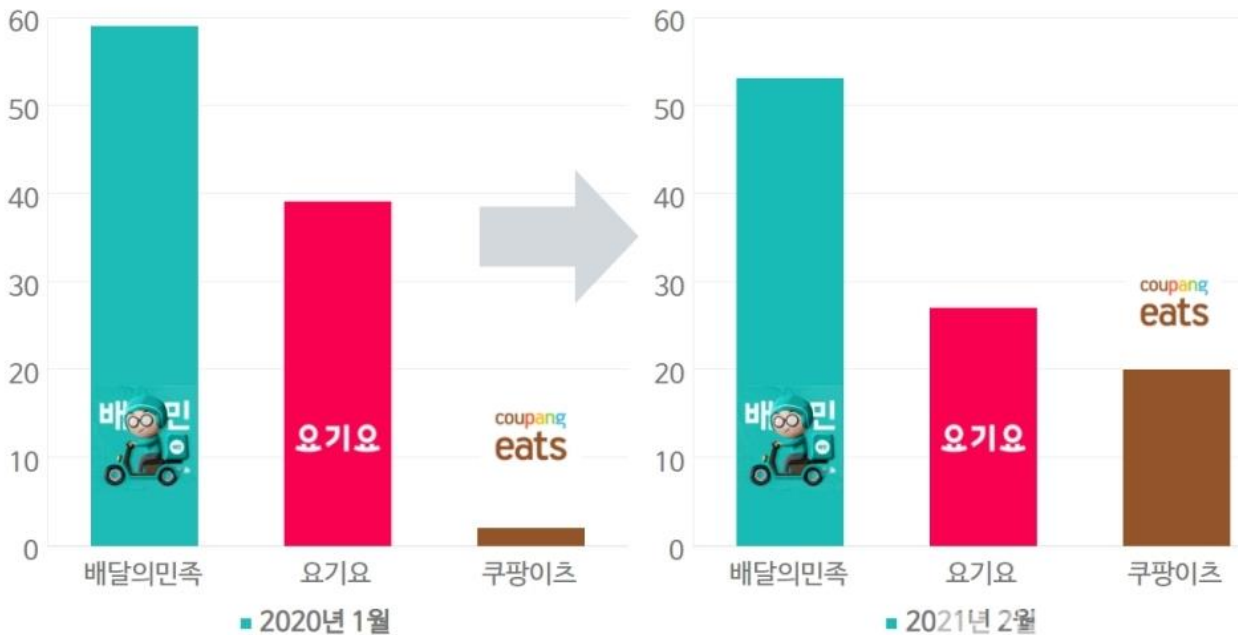
자료: 우아한형제들, 언론 보도

쿠팡이츠마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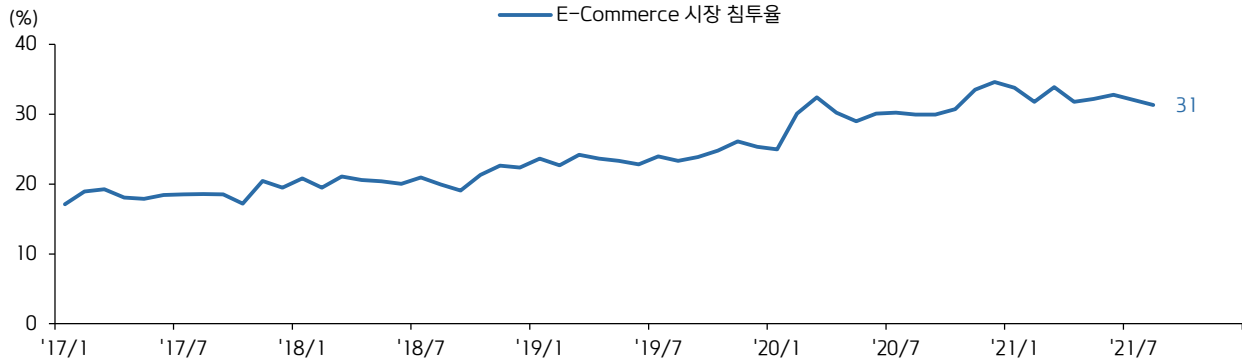
자료: 쿠팡, 언론 보도

배달음식 앱 순방문자 점유율 변화: 쿠팡이츠, 배송 시간 단축한 단건 배달 서비스로 MS 급격히 확대



자료: 언론 보도, 닐슨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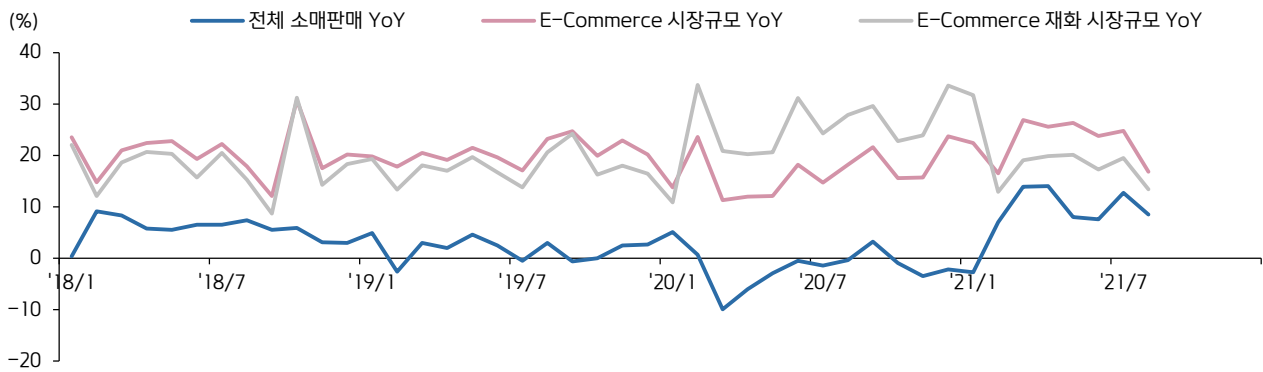
한국 E-Commerce 시장 침투율 추이: 국내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30% 초반에서 정체 흐름



자료: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

주: 1) 자동차와 서비스 매출액 제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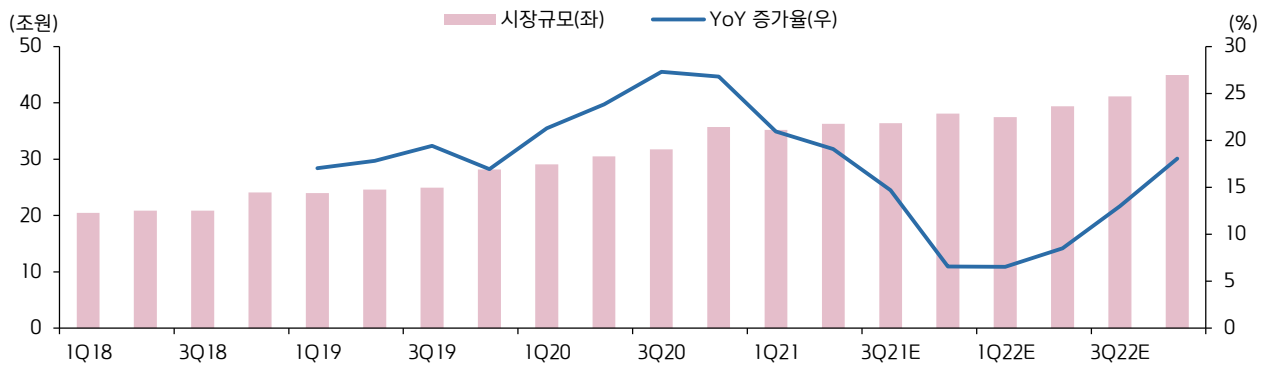
한국 전체 소매판매 vs E-Commerce 시장규모 YoY 증감률 추이 비교: '재화' 시장 성장률 둔화 추세



자료: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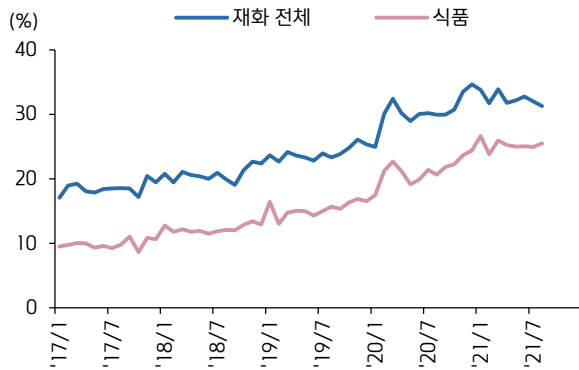
주: 1) 전체 소매판매는 자동차 제외 기준임

분기별 한국 E-Commerce 재화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4Q21~2Q22는 한 자릿수 성장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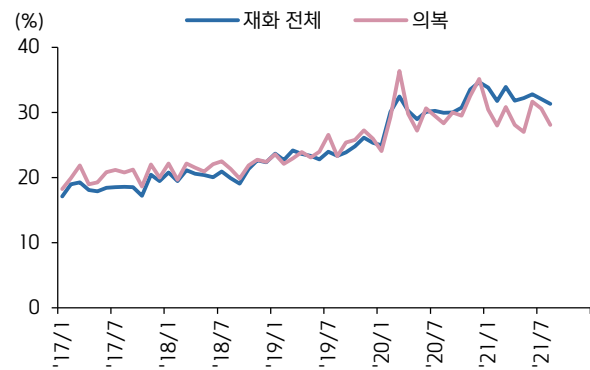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

E-Commerce 침투율 비교: 재화 vs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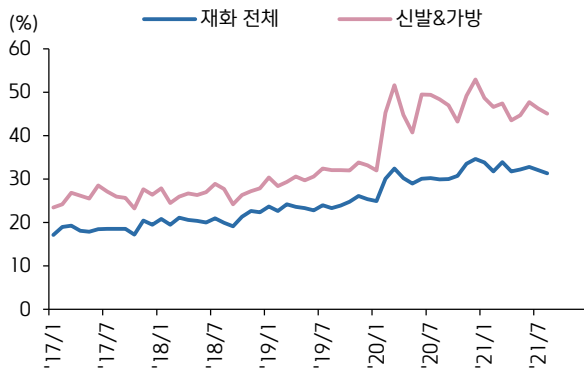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

E-Commerce 침투율 비교: 재화 vs 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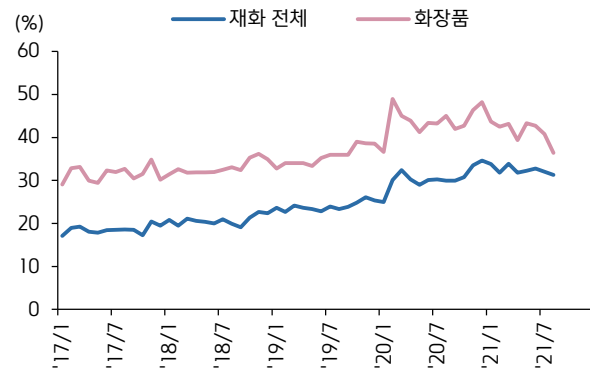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

E-Commerce 침투율 비교: 재화 vs 신발&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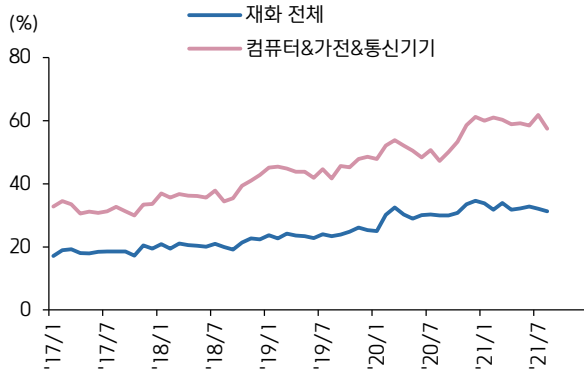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

E-Commerce 침투율 비교: 재화 vs 화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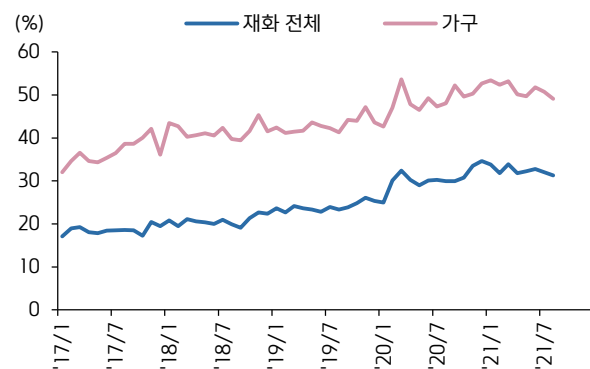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

E-Commerce 침투율 비교: 재화 vs IT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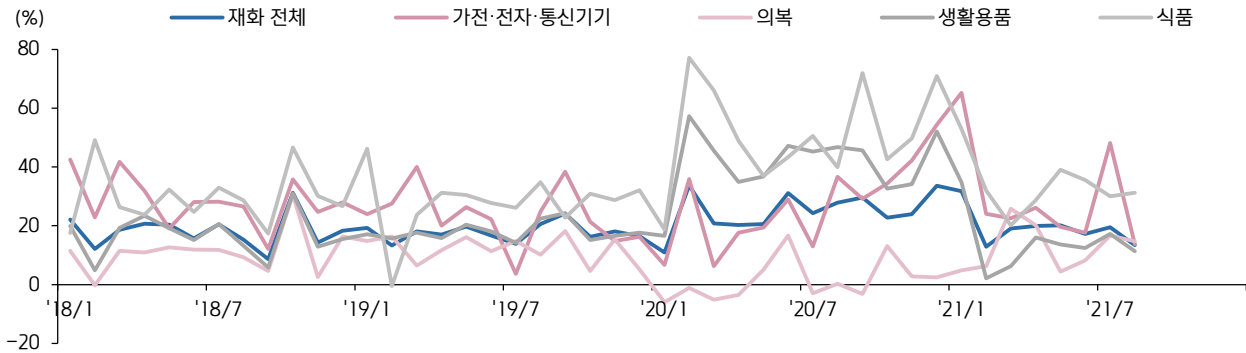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

E-Commerce 침투율 비교: 재화 vs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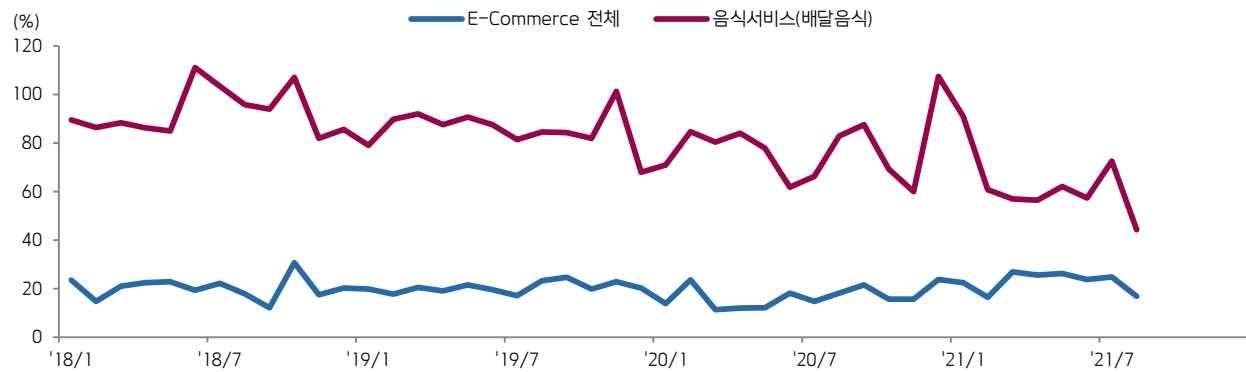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

상품군별 E-Commerce 시장규모 YoY 증감률 추이: 식품 성장률이 가장 아웃퍼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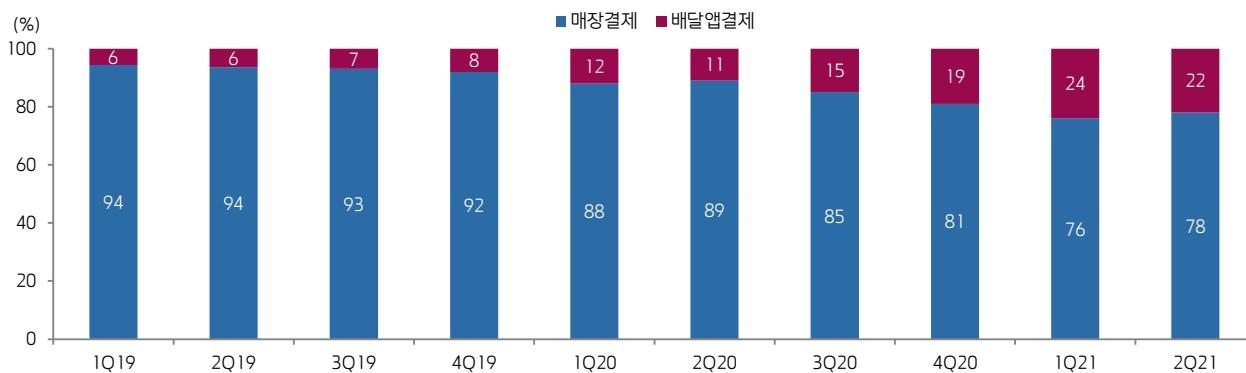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

배달음식 시장 성장률이 E-Commerce 시장 성장률을 크게 압도



자료: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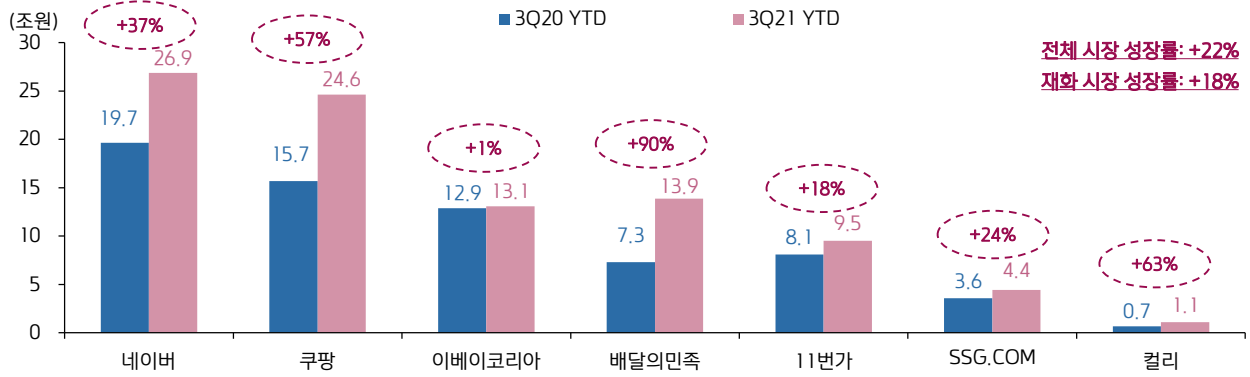
일반식당(매장) vs 배달앱 매출 비중 추이: 배달음식의 외식 시장 침투율 상승 여력은 여전히 높은 편



자료: 언론보도, 신한카드빅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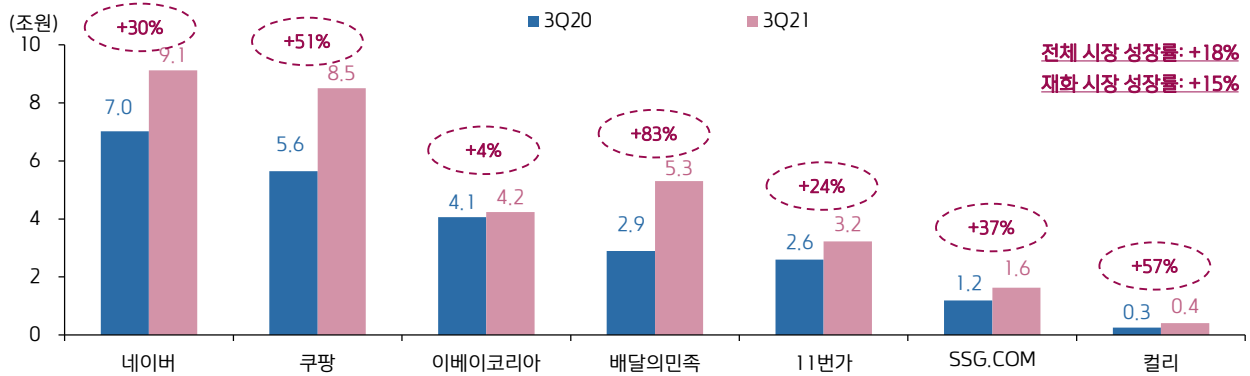
주: 1)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3사 기준임

주요 E-Commerce 업체 '3분기 누계 거래액' 비교: 대체로 식품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가 아웃퍼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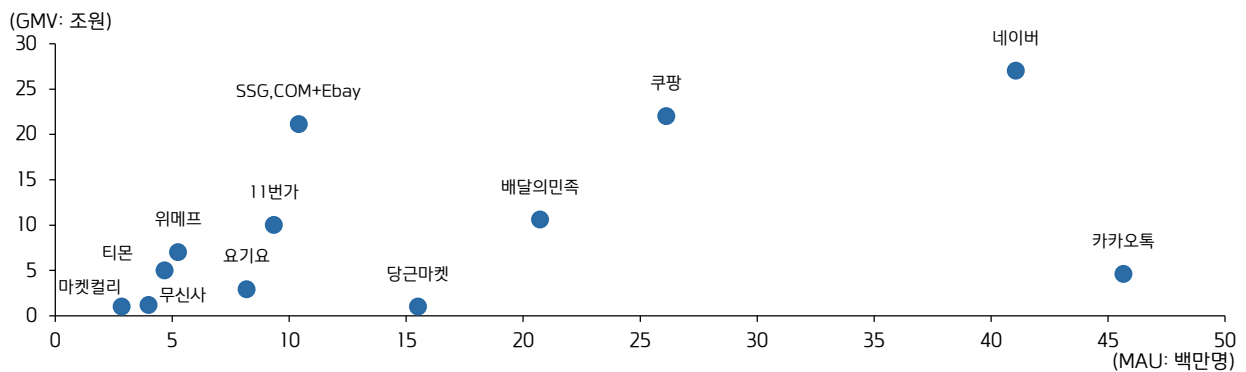
자료: 와이즈앱,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
주: 1) 시장 성장률은 당사 추정치 기준임

주요 E-Commerce 업체 '3분기 거래액' 비교: Top 2인 네이버/쿠팡은 성장률 둔화, 쓱닷컴은 판촉 강화로 성장률 상승



자료: 와이즈앱, 통계청, 키움증권 리서치
주: 1) 시장 성장률은 당사 추정치 기준임

주요 E-Commerce 업체 MAU & GMV 비교: 네이버/카카오를 제외하면 쿠팡/배달의민족이 MAU에서 압도적



자료: 모바일인덱스, 언론보도, 각 사 자료, 와이즈앱, 키움증권 리서치
주: 1) MAU는 네이버/카카오/쿠팡은 21년 6월, 티몬/위메프는 21년 3월, 나머지는 21년 7월 기준
2) GMV는 2020년 기준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주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주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기준(6개월)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20/10/01~2021/09/30)

매수	중립	매도
97.63%	2.37%	0.00%